

11. 언제 선교사 멤버케어는 끝나는가? When Is Missionary Member Care Don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언제 선교사 멤버케어가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짧게 대답하자면 “모집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이다.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편이다. 선교사들은 보통 4 년은 선교지에서 1 년은 본국에서 지내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런데 요즘은 2 년은 선교지, 6 개월은 본국 사이클의 선교사들도 많다. 어떤 스케줄로 사역하든지 간에 선교사들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 1 단계: 모집 Recruitment
- 2 단계: 심사 Screening
- 3 단계: 준비와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Preparation and Pre-Departure Orientation
- 4 단계: 출국 Departure
- 5 단계: 현지 도착 Arrival
- 6 단계: 현지 생활 Field Life
- 7 단계: 귀국 준비 Preparation for Returning “Home”
- 8 단계: 재입국 Reentry
- 9 단계: 지속적인 후원 Ongoing Support

멤버케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링크가 필요하다면 계속 읽으세요.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보면 선교사 멤버케어가 선교사 모집 때부터 은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때부터 평생동안 여러 타입의 멤버케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데이빗 폴록(David Pollock)은 1997 년에 인터랙트(*Interact*)라는 학술지에 “돌봄과 멤버케어자들의 흐름의 개발(Developing a flow of care and caregivers)”이라는 글을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을 늘려서 2002 년에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라는 책에 그 내용을 발표했다[역자 주: 위의 제목으로 최창근 외 공역으로 번역되어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2002 년 출판되었다]. 그 글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doing-member-care-well> 제

2 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소제목들은 바로 그 장에서 따왔고 내용도 역시 그 글에서 간추린 것이다.

선교사 후보가 영혼을 잘 돌보는 건강한 지역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었을수록 더 좋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소그룹의 일원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 가르쳤을수록 그 교회 출신의 새로운 선교사들은 다른 문화에서 섬기는 일에 긍정적인 경험들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타문화 선교를 향해 움직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차원의 돌봄이 필요하다.

1 단계: 모집 Recruitment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또는 선교사들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들을 때, 사람들은 선교 단체를 접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점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선교사 지망생과 선교 단체의 모집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28-30 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계획할 때, 끝까지 다 마치지 못해서 조롱받지 않도록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선교사 지망생이 너무 낙관적이거나 선교사 모집자가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하면 그들 중 누구도 어려운 질문을 못할 수 있다. 선교사 모집자는 그 비용에 대해 정직해야 하고 선교 지망생 역시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그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십대 자녀가 가길 원하지 않을 때, 온 가족이 가야 하는건지? 만일 부부 중 한 명만 소명을 느낄 때, 부부가 함께 가야 하는가? 싱글이라면 독신의 삶에 준비되어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 선교사 후보가 이런 질문을 묻도록 누군가가 격려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받을 것인가?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구와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문제는 괜찮은가? 일반적으로, 멤버케어에 관한 전문적인 질문 만큼이나 또 다른 질문들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주요 멤버케어자(caregivers)는 친구들, 가족, 목회자들과 타문화에서 오래동안 열매 있는 사역을 할 사람들을 찾기 원하는 선교사 모집자들이다.

로이 존스톤(Roy Johnston)의 “나는 과연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라는 도움이 될만한 챕터가 *선교사들의 성장을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한 읽을 것들(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이라는 책에 있다. 이 소고는 여러 유익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 다음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membecaravan/test/helping-ms-grow-book> 2 장에 있다.

2 단계: 심사 Screening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탈락되고 어떤 사람은 선발되어야 한다. 이런 선별 작업은 지원자, 선교 단체, 섬길 나라 사람들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정신 분열증처럼 치료되지 않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탈락시켜야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현장의 팀을 와해시킬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타문화 선교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선교를 원하지만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되겠습니다” 또는 “아직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이런 선별작업은 직장을 그만 둔다든가 집을 처분한다든가 심지어 선교사가 될 거라고 발표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일찍 끝내야 한다.

선별 작업에서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가장 잘 섬길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떤 필요가 있게 될지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해 최대한 알아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만성 의학적 이슈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과거사가 있거나, 결론

가정에서 왔다가 한다면, 잠정적인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만일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다룰 멤버케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인사 관련자들이 이 단계에 관여하는 멤버케어 담당자들이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사이트의 선교사들이 성장하도록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한 읽을 것들(*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이란 책에 심사(screening)에 관한 글이 있다.

- 3 장: “좋은 선교사를 뽑는 방법,” 저자: 마조리 포일(Marjory Foyle)
- 4 장: “후보자 선별 기준: 여론 조사,” 저자: 래리 퍼거슨(Larry Ferguson), 딘 클리워(Dean Kliwer), 스탠리 린퀴스트(Stanley Lindquist), 도널드 윌리엄스(Donald Williams), 로버트 하인리히(Robert Heinrich)
- 5 장: “교회 개척자를 뽑는 방법,” 저자: 토마스 그래함(Thomas Graham)
- 6 장: “심리 평가의 이론적 원리,” 저자: 스탠리 린퀴스트(Stanley Lindquist)
- 7 장: “심리 평가의 요점과 도구들,” 저자: 래리 퍼거슨(Larry Ferguson), 딘 클리워(Dean Kliwer), 브렌트 린퀴스트(Brent Lindquist), 스탠리 린퀴스트(Stanley Lindquist)
- 8 장: “심리 평가의 오용 사례들,” 저자: 브렌트 린퀴스트(Brent Lindquist)

에스터 슈벌트(Esther Schubert)가 쓴 “심사와 선별의 현 이슈(Current Issues in Screening & Selection)”라는 글이 *선교사 케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용 계산(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이라는 책, 6 장에 있는데 다음 링크에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3 단계: 출국 준비와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Preparation and Pre-Departure Orientation

사람들은 정식 훈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갈 나라의 문화의 실제적인 경험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고 싶는데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학 강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될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가르치기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데 그와 같은 사역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회중을 목회하는 것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더욱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문화 속에 살 때 일어날 상황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한다.

출국 전에, 선교사 지망생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준비하도록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선교국에 도착했을 때 “잘 입국(enter right)”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여권 발행국을 “잘 출국(leave right)”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그들의 선교사 사역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은 보다 현실적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또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적응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지 모르는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인가를 가져야만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베테랑 선교사와 타문화 훈련가들이 멤버케어 제공자들이다.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에 있는 *선교사 케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가 산출(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이라는 책의 여러 장에는 출국 준비와 출국 전 훈련에 적합한 글들이 있다

- 11 장: “성공적 해외 선교를 예측하는데 관련된 변수들,” 저자: 윌리엄 고든 브릿 III(William Gordon Britt III)
- 12 장: “준비: 뗏목을 지불하라,” 저자: 필 엘킨스(Phil Elkins)

4 단계: 출국 Departure

폴록(Pollock)은 ‘출국을 위해 (뗏목이란 뜻의) RAFT 를 만들라’는 조언으로 유명하다. RAFT 는 아래와 같은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말이다.

- Rconciliation 화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가능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Affirmation 감사. 떠나는 선교사와 본국에 남는 친구나 가족 쌍방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다.
- Farewells 작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 Think destination 목적지 생각하기. 가려는 곳에 대해 기대하고 하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출국에 도움이 된다.

Friends, family, and the local body of believers are the primary caregivers for this stage. 이 단계에서는 친구, 가족, 출석교회의 식구들이 멤버케어자들이다.

Stage 5: 선교지 도착 Arrival

새로운 선교사들이 현지에 도착할 때, 현장 디렉터와 시간이 되는 선교사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오거나 최소한 처음 며칠 동안에 환영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멤버케어 제공자는 좋은 멘토다. 이 멘토는 그 선교사에게 그 지역 문화와 선교사의 지역 공동체를 소개해야 할 주요한 책임이 있다.

멘토는 새로운 문화에서 사는 일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하고, 가이드북에 있지 않은 일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또한 멘토는 새로 온 선교사들에게 회의나 쇼핑에 데려가고, 지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길을 어떻게 건너는가 등의 일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새로 온 사람을 케어자 만큼이나 새 환경에 익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에 나오는 책, “선교사들의 성장을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해 읽을 것들(*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에는 ‘선교지 도착’에 관한 여러 장이 있다.

- 31 장: “새로운 곳에서 소속감 찾기,” 저자: 테리 깁스(Terri Gibbs)
- 32 장: “우리는 어떻게 초기 문화충격을 일찍 줄일 수 있었나,” 저자: 알렉산더 볼야나츠(Alexander Bolyanatz)

6 단계: 선교지에서의 삶 Field Life

사역현장에서는 여러 경로의 케어(care)가 있을 수 있다. 매주 열리는 기도/친교 모임, 책임 그룹, 분기별 스텝 수련회(reatreat), 연례 대회와 또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해 케어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디브리핑(debriefing) 전문가들이

을 수도 있고, 목회 심방을 통해서도 케어가 이루어지며,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방면의 전문가들이 방문할 수도 있다.

세계의 어떤 할당된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의 리더들과, 각 나라 현지 디렉터, 각 도시를 담당하는 팀 리더들이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고 복수심 많은 지도자들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선교사들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고 현지를 떠나거나, 선교단체, 심지어 선교 사역에서 완전히 떠날 확률이 높아진다.

선교사를 보낸 지역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내주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18 장 참고)

케넷 윌리엄스(Kenneth Williams)가 쓴 “선교에서의 상호 케어 모델”은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에 나오는 책, *선교사 케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가 산출(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4 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모든 단계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선교현지의 삶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7 단계: 귀국 준비 Preparation for Returning “Home”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폴록(Pollock)은 이 과정에서도 RAFT(뗏목)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즉 화해, 감사, 작별, 귀환 후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기이다. 인터넷을 통해 셋집 정보를 찾거나, 자녀들을 학교에 등록시키고, 직장에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지역 교회들이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 교회는 선교사들이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다. 집을 미리 청소해 준다든가 부엌 창고 선반에 식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다. 전기, 수도 등을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려 주거나 돌아 오는 선교사를 위해 직접 수고를 해 줄 수도 있다.

더 완성된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before_reentry 에서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재입국 준비(*Before You Get “Home:” Preparing for Reentry*)를 참고하세요.

Stage 8 단계: 재입국 Reentry

가장 좋은 것은 선교 기관, 지역 교회, 선교사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재입국하는 선교사들이 가능한한 쉽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멘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재입국시의 멘토들은 선교지 현지의 멘토들처럼 본국에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질문에 답해 주며 돌아온 고국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에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입국 수련회나 세미나는 돌아오는 선교사들 자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잘 인식하고 처신하도록 돕는다. 수련회 기간에나 수련회를 갈 즈음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두 종류의 디브리핑을 한다. 첫째는 선교기관 관련자가 주관하는 조직 디브리핑이다. 이 보고는 사역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둘째는, 거부감이나 비난에 대한 걱정 없이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 디브리핑이다. 이같은 디브리핑은 그들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더 완성된 정보를 보려면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reentry> 에서 귀국: 재입국 전환(*Coming "Home": The Reentry Transition*)을 참고하세요.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에서 “선교사들의 성장을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해 읽을 것들(*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에 들어가면 재입국 관련 챕터들이 여럿 있다.

- 48 장: “재입국 스트레스: 귀국의 고통,” 저자: 클라이드 오스틴(Clyde Austin)
- 49 장: ‘귀국을 환영합니다! 선교사 자녀 재입국의 고통 완화,’ 저자: 데이빗 폴록(David Pollock)

9 단계: 지속적 지원 Ongoing Support

몇몇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재입국 한 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은퇴 선교사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에 사회보장 체계가 잘 안 되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계를 후원할 적절한 재정적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 장기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재정적, 사회적 희생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몇몇 선교사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 그만두기도 한다. 마조리 포일(Majority Foyle)은 이들을 ‘명예로운 부상자(honorably wounded)’라고 불렀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이겨내기 힘든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황폐할 수 있다.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희생했으므로 누군가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이 회복하도록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

성장기 중 상당 부분을 여러 문화권에서 보낸 제 3 문화 자녀들(Third Culture Kids, TCKs)은 그 문화들이 어떻게,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성인이 되더라도 이같은 제 3 문화 자녀들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세미나, 재결합(reunions), 인터넷 네트워킹, 개인적 코칭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항상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멤버케어를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doing-member-care-well> 에서 데이빗 폴록(David Pollock)이 쓴 책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인 관점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의 챕터 “돌봄과 멤버케어자들의 흐름 개발(Developing a flow of care and caregivers)”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장에서 그는 모든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한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언제 선교사 멤버케어는 끝나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역자주. 한국어로는 anmcusa@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